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흥 송호빈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준 화순 박순철

‘여수 관광 쉽고 재밌게’ ... 모바일 앱 ‘아! 여행!’ 출시

길찾기·캐릭터잡기·기부견기 등 제공



여수시가 관광객 편의를 위해 관광 안내 모바일 앱 ‘아! 여행!’을 1

일 본격 출시한다. ‘아! 여행!’은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여행의 출발점으로 길찾기, 캐릭터잡기, 기부견기 등 편의와 오락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앱을 설치하면 관광지, 음식점, 숙박 시설, 화장실, 주차장 등을 쉽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다. 길찾기의 경우 T-map과 연동

수집하면 사이버머니를 제공하는 증강현실(AR)게임은 여수관광의 재미를 더한다. 사이버머니는 앱 상점에서 찻집지, 방종차, 동백오일, 블루투스 스피커 등과 교환 가능하다. 오토도부터 이순신공방까지 이어지는 여수밤바다 낭만코스 등 여수의 아름다운 길 5곳을 걸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금도 적립할 수 있다. 기부금은 km당 1,000원씩 쌓인다. 시는 앱 출시 후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여수엑스포역, 오토도, 전국관광박람회 등에서 홍보 이벤트를 벌인다. 오프라인을 통한 참여 이벤트도 진행한다. ‘아! 여행!’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여수여행’ 또는 ‘여수관광’을 검색 후 ‘여수관광 안내 앱’을 다운로드 설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여수 관광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바일 앱이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영암군, 제1기 청년협 의체 위원 모집 실시

영암군이 오는 25일까지 1개월 간 청년 정책 개발을 위한 청년 네트워크인 제1기 영암군 청년협의체의 운영 위원 모집을 전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청년을 위한 정책 시행은 청년에 의한 정책 개발부터’라는 프레임(비전) 아래 사업 수혜자 맞춤형 정책의 개발을 위한 기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이를 통한 사업 효과성 검증 등을 위해 이와 같이 협의체 구성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관내 거주 청년이라면 직업이나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모집 규모를 ‘일자리·창업/교육/문화/복지’의 4개 분과에 각 10명씩 총 40명 내외로 정하고 있어, 지역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의 종합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영암=조대호 기자

완도군, 황칠 공예전 개최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서 완도군은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2전시관에서 황칠 공예전을 개최한다. 개막 행사는 5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이번 공예전은 금빛 찬란한 황칠의 명성을 되찾고, 완도 황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완도군이 주최하고, 소명공방에서 주관하였으며 완도군 황칠나무생산자협회와 금어원의 후원으로 기획됐다.

완도의 특산물인 황칠은 과거 약재와 도료로 쓰여 왔으며 한, 중, 일 산국에서 황금에 비교될 만큼 귀하게 여겨졌으나, 도료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그 맥이 끊겨 약재로만 활용이 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류오현, 배철지 작가가 교문현을 참

고하고 수회에 걸친 실험을 통해 황칠 도료 복원에 성공, 2017년 말 특허를 등록하여 이번 공예전을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전시 작가는 벽암 김정남, 서강 김태호, 소명 류오현, 발중 배철지, 토화 이창수, 태헌 정병석, 현소화 이희경이 참여하며 황금색의 휘황찬란한 광채를 띠는 황칠의 신비로움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 30점 이상을 선보인다.

특히 작가 별로 독립된 주제를 부여해 완성시킨 공예품은 비너, 도자기, 서예, 불상, 불화, 보석함 등으로 다양한 작품이 전시돼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전시는 전통 있는 황칠을 현대식 제조 방법과 재해석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황칠의 다각적 측면을 제시한다.

완도=김광수 기자

담양군, ‘치매안심마을’ 사업설명회



담양군은 치매환자와 가족이 편안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이에 필요한 환경이 충분히 갖춰진 마을을 조성하고자 지난달 29일 금성면사무소에서 치매안심마을 사업설명회와 업무 협약을 개최했다. 치매안심마을 사업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방지하고 보호가 필

요한 치매환자를 마을이 나서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해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날 군은 지역인프라 및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고려해 금성면 석현리를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하고 면사무소, 보건지소, 요양원, 이장·부녀회장, 노인회장, 의용소방대장 등의 운영위원을 위촉했다. 이어 치매 안심 환경조성을 위해 7개 협약기관(금성면사무소, 금성중학교, 금성초등학교, 금성농협, 금성요양원, 금성파출소, 금성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군은 선정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및 정밀 검사, 치매관련 교육·캠페인 지원,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인지자극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치매환자 및 가족 연계, 인지자극 프로그램 및 사전·사후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순복 군 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안심마을을 통해 환자 조기발견으로 중증이환을 예방하며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및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걱정 없는 담양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흥군, 장평면전통시장 현대화 위해 임시시장 개설

용강리 22-8번지 일대

장흥군은 장평면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위해 1일부터 용강리 22-8번지 일대에 임시시장을 개설한다. 장평면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라 임시로 자리를 옮기는 곳에는 총 9개의 점포가 마련된다. 임시시장은 현대화 사업이 마

리되는 올해 10월까지 운영 될 예정이다.

장평면은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방출, 이장회의,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장평면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12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상 1층 연면적 612㎡ 규모로 진행된다.

기존 시장의 노후된 장육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올 10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김주호 장평면장은 “새로운 전통 시장이 열리기전에 장평면임시시장을 우선적으로 활성화시켜 시장상인파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장흥=송호빈 기자

화순군,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확대

중·고생 20명 선발 해외 연수 지원...5일까지 신청·접수



화순군이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화순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사업을 확대했다.

화순군은 중·고교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동시에 해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군은 올해 해외 연수 선발 인원을 20명(2018년 16명)으로 늘렸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중·고생) 등 ‘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신설한 데 따른 조치다.

취약계층의 해외 연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명 중 사회적 배려자 5명을 우선 배정했다.

대상자는 두 차례의 영어 수준 진단 평가를 거쳐 선발한다. 참가 자격은 접수 개시일 기준 화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관내 중학교 1학년 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이다.

참가 신청 기간은 1일부터 5일까지다.

응시 원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영어 수준 진단 평가는 국내 공신력 높은 전문출제기관에 위탁한다.

1차 평가는 필기시험(듣기·읽기 부분)으로 5월 11일, 2차 평가(말하기 시험)는 6월 8일 진행한다. 군은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8명(사회적 배려자 5명 포함)을 최종 선발한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6일 관내 학교에 평가 시험 시행 계획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안을 전달했다. 해외 연수는 올 하반기(8월 말~9월 초) 8박 10일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연수 대상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연수 시기, 활동 내용 등 세부사항을 협의·결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로 두 번째 추진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이 지역 청소년에게 국제적 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관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맛과 향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